

6년 넘도록 1심도 안 끝난 '거북이 재판' 왜?

전국 3만여명에 광고비 명목 93억원 가로챈 사기사건 경찰·검찰 미흡한 수사 한몫 재판부도 5차례 이상 바뀌어 내달 24일 선고기일 결과 주목

법원이 6년 넘게 한 사건을 놓고 1심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기소된 지 6년이 넘었고 재판부는 5차례 이상, 담당 검사도 10차례 넘게 바뀌었지만 여태껏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검찰의 허술한 수사가 한몫을 했다는 법조계 시각도 있지만 이런 '거북이 재판'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심 재판만 6년 넘게 걸려=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0명(법인 포함)에 대한 재판이 지난 2014년 8월 기소된 이후 6년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A씨 등은 광고대행업체를 차려놓고 텔레마케터 20여 명을 고용한 뒤, 전국의 자영업자 3만 7000여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인터넷 등에 광고를 내주겠다고 광고비 명목으로 1인당 3만~30만원을 받는 등 9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뒤 검찰로 넘겨져 기소됐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 동안 진행됐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뒤 수집한 개인정보를 결재대행사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에 입력,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과 텔레마케터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재판은 6년 전인 2014년 8월 26일 열

린 뒤, 6년이 지난 아직도 광주지법에 '계류중'인 상태로, 지역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도망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을 빼면 광주지법 최장기 미제(未濟) 사건"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 사이 담당 재판부 판사가 5차례 넘게 바뀌었고, 공판 검사도 10차례 이상 변경됐다. 공소장만 300장이 넘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도 150명에 달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없다=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6년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27조 3항)이 규정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일어난 일로 몇 해를 넘기며 재판에 불려 다니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신속한 재판을 하 소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길어진 이유는 경찰과 검찰의 미흡한 수사가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흘러나온다. 증거 확보가 수사의 핵심인데도, 3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를 꼼꼼히 챙겨서 재판에 넘긴 게 아니라, 뭉뚱거려 기소하다 보니 입증 과정에 어려움이 빚어지고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피고인들이 "영입방식의 문제일 뿐 사기는 아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기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재판부가 변경되고 검사가 바뀌면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흘려보냈다.

담당 재판부는 올 들어서만 선고 일정을 네 차례 변경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4일 선고 기일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6년 만에 결론이 날 지 주목된다.

/김지성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내일 스쿨미투 TF 경과 보고회

처리 방법·절차 개선 방안 발표

광주교육청이 27일 광주학교시설지원단 대강당에서 '스쿨미투 TF 운영 경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학교 내 다양한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처리 방법 및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스쿨미투 TF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여성단체, 교원단체 등 내·외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스쿨미투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2019년 12월 20일)을

바탕으로 교육 주체 간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매뉴얼 보안을 위해 6개월 간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학생·학부모 참여 보장 및 행위 교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기회 제공,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조사 기구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회의를 거쳐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하반기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339명 인사

7·8·9급 103명 승진

전남교육청이 일반직 공무원 339명에 대한 인사를 9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휴직, 퇴직 등 결원에 따른 충원과 신규 공무원을 신속하게 배치해 코로나19 상황 속 효과적인 방역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에 발령받은 신규 공무원들은 8월 31일 최종 합격한 291명 가운데 163명이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하위 직급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7급 8명, 8급 36명, 9급 59명 등 모두 103명을 승진시켰다.

김춘호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결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능력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각급 기관에 속속 배치돼 신속하고 자질없는 현장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교육청 수능 D-100 운영 대책 만전

자가격리 별도 시험장 2개 마련 교육감 수험생 격려 메시지 발표

광주·전남교육청이 25일 수능능력시험(12월 3일) D-100을 맞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질 수능 운영 대책과 교육감 명의의 격려문을 내는 등 수능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광주시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자가격리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장 2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체 시험장 40곳 중 2곳을 자가격리 수험생 전용 시험장으로 지정해 교실당 1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보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장 1곳당 20개 교실을 마련해 최대 40명의 자가격리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다.

또 수능 시험 당일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는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 내 별도 교실에서 시험을 보도록 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수능 수험생들의 발집도를 낮추기 위해 작년에 교실당 28명에서 올

해는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수능 관리를 위해 시청, 지방경찰청, 소방안전본부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집중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도 장석웅 교육감 이름의 격려메시지를 발표하고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긍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장 교육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해보다 걱정과 불안감이 크겠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남은 100일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여러분의 앞날을 도울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 "선생님과 자녀의 진로를 위해 가슴 졸이고 계시는 학부모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응원했다.

한편 올해 수능 원서접수는 9월 3~18일 진행되고, 지역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른 시도 출신이나 검정고시,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는 시도 교육청 원서접수처에서 접수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도서관도 2단계 거리두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진 가운데 25일 전남대학교 도서관에는 거리두기를 지키며 배치된 제한된 열람석 탓에 자리를 차지하려는 대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스크를 쓴 채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스럽기만 하다. <전남대 제공>

동신대 내달 18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수업

동신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을 3주 가량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비대면 수업 기간은 같은 달 18일까지로, 실습 과목의 경우 최소 인원 참여,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제한적으로 대면수업을 진행한다.

앞서 동신대는 2학기 수업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면·비대면 수업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1단계 상황에서는 비대면 및 대면 수업을 병행하되, 하루 확진자 20명 미만의 경우 강좌별 30명 이하로, 20~50명 미만이면 강좌별 20명 이하로 대면 수업 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는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 대면수업이 가능하다.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체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동신대는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단계별 수업 운영 지침을 학교 홈페이지 및 동신대학교 대표 앱 푸쉬로 안내할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동구,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비대면 권고

광주 동구가 법률지식 부족과 경제적 형편 등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5일 동구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7명의 마을세무사를 위촉,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해당 마을세무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상담도 지속적으로 진행중이지만 감염예방을 위해 전화나 팩스·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북구, 임산부 건강 증진 특화서비스 실시

광주시 북구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 건강 증진 특화서비스를 실시한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철분제, 엽산제 등 영양제를 우편 배송하는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산모와 신

생아의 모유수유 지원을 위해 1개월 동안 모유착유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맘(Mom) 편한 비틀기 택배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 지원이 종료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1회당 최대 150만원, 매년 총 4회의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에 노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정부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형 일: 2021. 1. 18(월)

임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